No.5 - 자오도 하나쿠센포에 법회

하나쿠센포에(花供懺法會)는 긴푸센지 절에서 1000 년 이상 이어져 온 가장 중요한 법회 중 하나입니다. 매년 4 월 10 일부터 12 일까지 3 일간, 자오곤겐의 신목인 벚꽃이 개화했음을 자오곤겐께 보고합니다. 자오곤겐은 슈겐도의 본존으로, 긴푸센지 절에는 파란색으로 채색된 입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 봄이 온 것을 보고하는 이 법회는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동시에, 그동안 저지른 죄를 참회하기 위한 의식이기도 합니다.

법회 첫날에는 주로 슈겐도의 여성 수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'대호마(大護摩)'라고 불리는 불을 사용하는 기도 의식을 거행합니다. 이 호마 의식에서는 소원이 적힌 나무판(호마목)을 불에 태웁니다. 법회의 참가자들은 헤이안 시대(794~1185)부터 이어져 온 전통행사인 '센본즈키(천 번 찧기)'를 실시합니다. 센본즈키에서는 여러 개의 기다란 봉으로 떡을 찧고, 완성된 떡은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.

마지막 이틀 동안에는 얏코(일본의 옛 의상을 입은 사람들)로 분장한 사람들, 승려들, 전통 의상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아이들, 그리고 슈겐도의 수도자들이 순서대로 줄을 지어 행렬을 만들고 지쿠린인 절에서 자오도까지 행진합니다.